

2015.11.04

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 추진

1.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

추진배경

-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고가 가방, 시계 등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인하되지 않았고,
- 당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 취지는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.

향후계획

- 입법예고(11.6~16) 등을 거쳐 11월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예정입니다.

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5.11.04

2. 주요내용

품 목	환 원 내 용
가방, 시계, 가구, 사진기, 용단	기준가격 500만원→ 200만원

- 상기 내용과 같이 15.8.27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 추진합니다.
- 과세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**가격인하가 부진한 가방, 시계, 가구, 사진기, 용단**의 기준가격을 당초 **200만원 등으로 하향** 조정합니다.
- **보석·귀금속,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다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**됩니다.
- 지난번 개별소비세 개정에 따라 환급되었던 금액에 대한 추징(납부)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이 최종 나와봐야 세부사항 확인이 가능 할 것으로, 차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추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